

『鍼灸經驗方』 「訛穴」의 取穴法 분석에 따른 현대적 적용 연구

이연희¹ · 차웅석¹ · 김남일¹ · 박희준² · 안상우³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¹의사학교실, ²경락경혈학교실, ³한국한의학연구원

An analytic study of acupoint locations described in 「WaHyul」 of 『ChimGuKyungHumBang』 and their modern application

Yun-hee Lee¹, Wung-Seok Cha¹, Nam-Il Kim¹, Hi-Joon Park², Sang-Woo Ahn³
Dep. of ¹Medical History, ²Meridian and Acupunctur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³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contents of 「WaHyul(訛穴 : The errors of acupoint locations)」 of 『ChimGuKyungHumBang』 to modern acupoint locations.

Methods : The text of 「WaHyul」 was closely examined and analyzed.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as reviewed based on its contents.

Results :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orrect 少商(LU11) was mentioned as a spot appropriately(如菲葉) distanced from the corner of the nail root under the skin. This is the most accurate and reasonable synthesis of other related texts. Furthermore, the necessity of defining the locations of all the well points was also emphasized and their locations were mentioned that could be located by the same method.

There is no further discussion of other acupoints apart from descriptions of their locations from other texts. Some parts that were pointed out as common errors included not only commonly made mistakes, but errors made in acupuncture texts as were true for 神門(HT7) and 肩井(GB21).

The standards of 少商(LU11), 合谷(LI4) and 足三里(ST36) presented in the WHO Standardization are not only similar to what 「WaHyul」 indicated as errors in acupoint locations, but also deviate other acupuncture texts; appropriate corrections must be made.

The standard of 肩井(GB21) presents a new acupoint locating method never mentioned before in received classic acupuncture texts and so a rediscussion is in need.

Other standards, such as the 絕骨(GB39), had some points of controversy, yet somewhat incomplete while HT7 did not go beyond the bounds of 「WaHyul」.

Conclusions : 「WaHyul」 can be used to revise WHO standards, and has practical value in modern acupoint locating.

Key words : ChimGuKyungHumBang, WaHyul, acupuncture point location,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HuhIm.

· 교신저자: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E-mail :
answer@kiom.re.kr, Tel. 042-868-9442

· 투고 : 2008/12/01 심사 : 2008/12/13 채택 : 2008/12/19

1. 서 론

許任의 『鍼灸經驗方』은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중국·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 의서이다^{①,2)}. 書名에서 알 수 있듯^② 浩繁한 침구 이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여, 효과를 보았던 것 위주로 정리한 서적으로, 임상에서 효과적이었던 것을 위주로 정리되어 있지만 기존의 한의학 이론에 어긋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선대에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던 것을 명확히 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한 면도 있다.

그러한 특징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의 하나로 卷頭의 「訛穴」 부분을 들 수 있는데, 흔히 범하게 되는 취혈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취혈의 정확성을 강조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당시 혼했던 오류를 알 수 있으며, 오류 지적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한 穴位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여, 현재의 혈위 결정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임상가에서는 근 몇 년 안에 취혈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으며, 최근 WHO에서는 각국 간의 논의를 통하여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왔던 穴位의 표준안을 마련하였다³⁾. 이에, 내용이 짧고 경혈의 수도 많지 않지만, 『침구경험방』의 「訛穴」 부분이 지금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리라 판단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이를 현재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WHO 경혈 표준안에 적용해 고찰해 보

았는데, 「訛穴」에서 다루고 있는 경혈이 6개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 외의 경혈에 대하여서는 다루지 않았다.(단, 少商(LU11)의 경우 다른 모든 정혈에도 같은 방법이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어, 12 井穴에 모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논고는 『침구경험방』의 「訛穴」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취혈이 어떠한지 자세히 분석하고, 다른 주요 침구 서적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는가를 평가하여, 그 내용을 현대의 경혈 표준안에 적용해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정확한 혈위가 어디인가를 완전하게 결론짓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II. 연구 방법

1. 『침구경험방』의 「訛穴」 원문을 번역, 분석하였다.

원문 번역에 있어서는, 이전의 언해본, 번역본, 현토본에 오류가 많아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려, 모두 새로 현토, 번역을 하였다^③.

2. 『침구경험방』 이전에 나온 경락수혈 관계 침구서적 중 주요 문헌들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각 穴의 취혈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표로 만들어 訛穴과 대조·고찰하였다.

① 중국에서는 『침구경험방』이라는 이름으로보다는, 『勉學堂針灸集成』에 표절되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② 經驗의 뜻은 '체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접 실천해 보아 얻은 지식이나 기능'의 뜻도 있다. 이 경우는 후자로 봄이 적절하다.

③ 文義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현토를 채택하였다. 대개 一中社本 『침구경험방』의 현토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오류가 있어 현토를 고치기도 하였다.

주요 문헌의 선택과 시기 구분은 『중국 침뜸 의학의 역사』⁴⁾와 『針灸名著集成』²⁾의 「前言-針灸文獻原流考略-經絡腧穴類」과 「未收針灸名著提要」를 참조하였다. 일부 책은 경혈 전체를 다루지 않았거나 殘卷으로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되어서, 경혈에 따라서는 대조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日本原南陽의 『經穴彙解』와 小阪元祐의 『經穴纂要』는 여러 서적의 穴位 표현을 종합·분석한 책이라, 표에 신지 않고 뒤의 분석 과정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대조·분석하였다.

3. 「訛穴」의 내용을 토대로 현대 취혈의 대표적 표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WHO 경혈 표준안을 고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訛穴」 원문 번역 및 분석

1) 少商(LU11)

銅曰在手大指端內側^{하야} 去爪甲角如韭葉^{이라} 하니 所謂韭葉은 有大小^{어늘} 而俗取爪甲距肉如絲^{하고} 而不察爪甲角이 距肉三分許^{하야} 與第一節橫紋頭로 相直^④라 手足指端이 悉皆倣此^{니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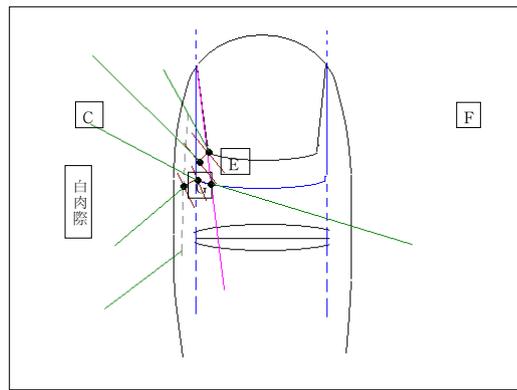
번역 : 『동인수혈침구도경』^⑤에 이르기

④ ‘치’로 발음해야 한다. 마주친다는 뜻이다.
⑤ 「訛穴」의 ‘銅曰’로 인용된 부분은 『동인수혈침구도경』과 일치한다. 『태평성혜방』을 개편해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동인침구경』에는 “少商者木也 在手大指端側去爪甲角如韭葉 白肉際宛宛中”이라 되어 있어서 이와 다르다.

를 ‘엄지손가락 끝 안쪽에 위치하여 爪甲角에서 부추 잎만큼 떨어져 있다’하였는데, 이른바 부춧잎이라는 것에는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러나 속간에서는 살에서 실만큼 떨어져 爪甲(손톱)을 취하며, 爪甲角(손톱 모서리)이 살에서 三分 정도 떨어져 손가락 첫 마디 횡문 끝과 서로 마주친다는 것도 살피지 않는다. 손가락 발가락 끝이 모두 이와 같다.

이 부분은 주요 침구서들에 없는 언급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아 좀 더 정밀한 고찰을 요한다. 우선, 이 문장을 끊어서 분석해^A 보면 ^B 다음과 같다.

그림 1, 少商 穴位 分析圖



- A : B에서 韭葉만큼 떨어진 곳
- B : 살 밖으로 드러난 손톱의 모서리
- C : F에서 韭葉만큼 떨어진 곳
- D : 살 안에 있는 손톱의 모서리
- E : 살 밖에 드러난 손톱의 옆선과 그 연장
- F : 손톱의 옆선을 E로 착각했을 때 잘못 알게 되는 살 속의 손톱 모서리
- G : 살 속에 있는 손톱의 옆선과 그 연장

① 이른바 부춧잎이라는 것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
② 그러나, 속간에서는 살에서 실만큼 떨어져 爪甲을 취하며,
③ 爪甲角이 살에서 三分 許(가량) 떨어져
④ 손가락 첫 마디 횡문 끝과 서로 마주친다는 것도 살피지 않는다.

㊤ 손가락 발가락 끝이 모두 이와 같다.

얼핏 보아서 이해가 쉽지 않으므로, 취혈 과정에 따라 순서를 바꾸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림1」 참조)

㊤ 그러나, 속간에서는 살에서 실만큼 떨어져 爪甲을 취하며,

우선, 肉자가 말하는 ‘살’의 의미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고찰해 보기로 한다.

‘대략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다르지만, 여기에서와 같이 몇 분단위로 위치를 말할 경우에, ‘어디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면이어서는 곤란하고, 점이거나 선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혈의 위치로 손톱 안쪽 모서리 근처에 표지가 될 만한 점이나 선이 ‘肉’字의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인데, ‘肉’字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은 B 주위의 살이 이루는 선뿐이라 하겠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경우 살의 바깥 쪽에 위치하는 것이 정상이기에, 정혈을 살이 없는 손톱 위에서 취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취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경우 肉의 의미를 ‘肉沿(margin)’의 뜻으로 보고 위치를 살 쪽에서 찾는 것이 언어의 유연함을 잃지 않는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의 나머지 말도 명확해지는데, ‘속간에서는 B에서 아주 조금(실만큼) 떨어진 A 정도를 少商(LU11)로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爪甲(의 위)을 취한다’는

말이 된다. 근래의 대부분 침구 서적이 겉으로 드러난 손톱의 일부의 모서리(B)를 爪甲의 角으로 생각하여 이에서 2mm 정도 떨어진 살 속의 손톱 위에서 취혈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 침은 피부를 뚫고 살 안에 있는 針尖이 손톱 위에 걸리게 된다.

그런데, 이는 ‘白肉際’, ‘宛宛中’ 등 여러 서적에서 수차 언급한 원칙에 어긋나며, 『東醫寶鑑』의 「點穴法」에서 『千金方』을 인용하여 “또한 肌肉의 결, 관절이 이어진 곳의 ‘움푹 파인 곳’, 손으로 눌러보아 환자가 시원해하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세밀하고 침착하게 마음을 써야 바른 穴을 얻을 수 있다(又以肌肉文理 節解^⑥縫會 宛陷之中 及以手按之病者快然 如此子細安詳用心者 乃得真穴耳)”^⑦라고 한 일반적인 취혈의 고려사항과도 어긋난다.

『黃帝內經』의 정혈 관련 언급에 “刺足大指爪甲上與肉交者”라는 표현이 있어, 살 속에 있는 爪甲에 침 끝이 걸리도록 취혈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반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의 ‘上’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위’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침구경험방』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江上’, ‘子在川上’^⑦ 등의 표현에서 보듯, ‘부근’, ‘가장자리’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爪甲角이 살에서 三分 許(가량) 떨어져 爪甲角(손톱 모서리)이 B 주위의 살이 이

⑥ 關節과 骨解, 즉 관절을 말한다.

⑦ 『論語』 「子罕」 편에 “子在川上曰 逝者 如斯夫 不舍晝夜”(공자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루는 라인에서 3分 許(가량) 더 들어간 D나 F 정도에 위치한다는 말이다. 1푼을 작게 잡아 대략 2mm 정도로 친다면 대략적으로 nail root의 끝과 가까와지기는 하지만 3分이라는 길이가 좀 긴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침구경험방』 내에서 大敦(LR1)에 대하여 ‘針三分’이라 하였고, 『황제내경소문』 王冰注에서는 大敦(LR1)에 대하여 “刺可入同身寸之三分”이라 하였다. 현실적으로 大敦(LR1)을 자침할 때 6mm 이상이 되기 어려움을 볼 때, 허임이 표현한 ‘三分’, 同身寸의 3분이 생각보다 많이 짧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⑧. 그리고 ‘許’라는 글자가 대략적인 거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이 표현에 큰 무리는 없다 하겠다.

㉔ 손가락 첫 마디 횡문 끝과 서로 마주친다는 것도 살피지 않는다.

㉕의 방식으로 살밑의 부분까지 爪甲으로 인식하게 되면, 손톱의 드러난 부분의 E라인을 따라 F를 爪甲角으로 보기 쉬워진다. 그러나 손톱 옆의 살을 벌려 爪甲의 옆 라인의 진행 방향을 따져 보면 알 수 있듯, 살 밑 爪甲의 바깥 라인은 대략 G와 같이 진행한다. 이는 엄지손가락의 관절 횡문의 끝과 ‘대략’ 마주치게 된다^⑨. 결국, 살밑의 조갑각은 G라인 상의 D가 된다. ㉕은 이점에 대한 주의라 할 수 있다.

㉖ 이른바 부추 잎이라는 것에는 크고 작

⑧ 一夫法은 흔히 통용되지만, 그렇게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⑨ ‘마주친다’는 말은 정확히 직선상으로 마주보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마주보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마다 손가락과 횡문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은 것이 있다.

이와 같이 爪甲角을 잡더라도, 부춧잎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다. nail root의 모서리(D)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을 少商(LU11)로 잡는가? 눌러서 움푹 파인 곳을 잡는다는 원칙을 생각한다면, 이는 피부의 두께, 손톱의 두께 등의 차이에 따라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허임의 이 말은, 예로부터 사용되던 ‘如韭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약간 떨어져 있다(距肉如絲)’ 정도의 의미를 넘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해야 함’의 의미로까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楊上善의 『황제내경명당』 주석과 무척 유사함도 주의해볼만 하다.

㉗ 손가락 발가락 끝이 모두 이와 같다.

다른 井穴들 또한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취혈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2) 습곡(L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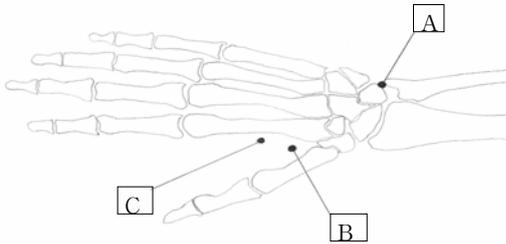
銅曰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而俗^이 抑度陽明經之所屬^{하야} 妄從食指偏取陷中^{하고} 不察岐骨間陷中^{이니라}^{5,6)}.

번역 : 『동인수혈침구도경』에 이르기를, 엄지와 식지가 갈라지는 뼈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에 있다고 하였는데, 속간에서 陽明經에 속하는 것을 고려해 제 몇대로 식지 쪽에 움푹한 곳을 치우쳐 잡고는 岐骨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이라는 것을 고찰하지 않는다.

이 번역에서, ‘大指次指’가 식지를 말함을 생각하여 ‘大指次指岐骨’이라는 말의 해석에

‘大指次指’가 ‘食指’를 말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뒤의 <표2>를 보면, 역대 서적에서 이를 ‘大指歧骨’, ‘大指次指歧骨’, ‘大指、次指歧骨’, ‘虎口歧骨’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동인수혈침구도경』 내에서 ‘在大指歧骨間’(上卷), ‘在手大指次指歧骨間陷中’(下卷)으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歧骨’이라는 말의 ‘岐’자를 생각할 때 엄지와 식지 중수골이 만나는 부위를 말하는 것임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겠으며, 우리 말 번역에서는 위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번역이라 하겠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역대 서적의 다양한 표현도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

그림 2. 승골, 神門 穴位 分析圖(dorsal view)



- A : 속간의 오류로 지적된 神門의 위치
- B : 올바른 승골의 위치
- C : 속간의 오류로 지적된 합곡의 위치

3) 神門(HT7)

銅曰在掌後銳骨端陷中而俗_이 不分陰陽經之屬하고 抑從表腕銳骨端陷中_{하되} 幾至橫犯太陽少陽經_{하니} 正所謂毫釐之差千裏之謬_{니라}^{5,6)}.

번역 : 『동인수혈침구도경』에 이르기를, 掌後銳骨端陷中(손바닥 뒤의 뾰족한 뼈끝의

움푹 들어간 곳)에 있다고 하였는데, 속간에서 陰陽經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고, 表의 腕銳骨端陷中(손목의 뾰족한 뼈끝의 움푹 들어간 곳)을 [올바른 경혈로] 따라서, 옆으로 거의 太陽, 少陽經을 침범하기에 이르니, (이는) 바로 이른바 털끝만큼의 차이에서 천리가 어긋나버린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옆으로 거의 太陽, 少陽經을 침범하기에 이르다’는 말과 ‘掌後銳骨이 아닌 表의 腕銳骨’이라는 언급이다.

먼저, 太陽經을 침범한다면 手少陰心經과 手太陽小腸經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럴법하다지만, 少陽을 침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혹시 (手)太陽小腸經의 오류가 아닐까? 박문현의 논문 「許任 『針灸經驗方』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인용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少陽’을 ‘小腸’으로 바꾸어 놓아, 少陽 두 글자를 오식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¹⁾.

하지만, 『韓國醫學大系』에 영인된 판본은 1644년 초간본으로, ‘목판본’이다. 금속활자본도 아닌 사람이 직접 한 글자씩 새기는 목판본에서 두 글자나 연달아 오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의학 용어로 사용되는 ‘少陽’이라는 말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다.

다음으로, ‘掌後銳骨이 아닌 表의 腕銳骨’이라는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 表의 腕銳骨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十四經發揮』, 『類經圖翼』, 『醫宗金鑑』 등 몇몇 서적에서는 銳骨(兌

骨)⑩을 踝骨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原南陽은 滑壽, 張介賓 등이 銳骨(兌骨)을 腕下踝骨(Ulnar styloid process⑪)이라 하여 神門의 위치에 오류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하였다.8)

『침구경험방』에서 언급한 '掌後'銳骨(손바닥 뒤의 뽀쪽한 뼈)은 pisiform bone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위에서 언급했던 滑壽, 張介賓의 오류를 따라 表의 '腕'銳骨⑫(表 부위 손목의 뽀쪽한 뼈)을 踝骨(Ulnar styloid process)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Ulnar styloid process 끝의 움푹한 곳에서 경혈을 잡는다면, 충분히 太陽經, 少陽經을 침범하는 위치가 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오류는 몇몇 문헌에도 남아 있는 오류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陰陽經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고', '表'라는 등의 표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여러 면에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4) 肩井(GB21)

銅曰在肩上陷缺盆上大骨前一寸半_{하야} 以三

- ⑩ 兌와 銳는 古今字의 관계로 古代의 兌字가 후대에 銳, 說, 悅 등의 글자로 발전한 것이다. 銳骨과 兌骨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 ⑪ 여러 서적에서 太陽經의 養老穴에 대하여 '在手踝骨上一空'이라 한 것을 참고. 좀 더 자세한 고증은 『경혈휘해』의 陽谷, 腕骨, 養老, 神門에 대한 부분을 참고.
- ⑫ 原南陽은 踝骨은 圓骨이고, 圓과 銳는 형태가 다르다고 역설하였지만, 銳는 上小下大, 尖의 '뽀쪽하다'라는 뜻으로 일정 부위를 가리키는 뜻이 강한 '踝'자와 달리 '銳'자는 여러 뼈의 앞에 붙을 수 있는 글자이다.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銳骨을 무턱대고 踝骨이라 표현하는 것은 오류가 되겠지만, 踝骨에 銳骨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踝骨이 上小下大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리가 없다.

指로 按取之_{라하니} 當中指下陷者是_{어늘} 俗이 不察하고 自肩_上으로 橫大骨端按三指_{하야} 巧尋髀上叉骨間陷中_{이니라}⑬^{5,6)}.

번역 : 『동인수혈침구도경』에 이르기를 어깨 위의 움푹 파인 곳에 있으니, 缺盆 위로 大骨 앞 일촌 반을 세 손가락으로 눌러 잡는데, 중지 아래에 움푹 파인 곳이 이곳이라 하였거늘, 속간에서 이를 고찰하지 않고 어깨 위에서 大骨 끝을 가로질러 세 손가락을 대어 어깨 뼈 위에 뼈가 교차되는 곳 사이의 움푹 파인 곳을 재주껏 찾는다.

결론 위로 대골 앞의 일촌 반⑭ 정도 되는 곳을 세 손가락을 붙인 채로 더듬어 가장 긴 중지 밑에 움푹 파이게 느껴지는 곳을 잡는 방식이다. 결론의 뒷부분에서 위치를 잡게 되며, 세 손가락을 붙여서 중지 밑에 가장 들어간 곳을 잡는 방식은 가로로 길게 파인 근육 사이의 틈에서 가장 깊은 곳을 찾는 요령으로 생각된다.

속간에서 一夫法과 비슷한 방식으로 어깨 위의 견봉의 大骨端에서 세 손가락을 가로로 짚어 어깨 위에 叉骨 사이의 움푹 파인 곳(巨骨(LI16) 정도의 위치가 될 것이다⑮)을 찾는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5) 絕骨(GB39:懸鐘)

- ⑬ 『동인수혈침구도경』의 원문에는 “在肩上陷 缺盆上大骨前 一寸半 以三指按取之 當中指下陷者是”로 되어 있다(일중사 현토본의 현토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 ⑭ 原南陽은 『經穴彙解』에서 여러 서적에서 '一寸半'을 말하였지만 이 수치에 굳이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 ⑮ 『針灸甲乙經』에서 “巨骨 在肩端上行 兩義骨間陷者中”이라 하였다.

銅曰在足外踝上三寸^{5,6)}이라하니 必以絕壘處爲穴而俗이 徒取絕壘骨上하고 不察脈行於絕壘向前骨肉之隙이니라^{5,6)}.

번역 : 『동인수혈침구도경』에 이르기를, “足外踝 위로 三寸이라” 하였으니, 반드시 壘이 끝나는 곳으로 穴을 잡아야 하는데, 속간에서 단지 壘^⑬이 끝나는 곳의 뼈 위를 취하고, 맥이 壘이 끝나는 곳에서 앞으로 뼈와 살 사이의 틈으로 간다는 것을 살피지 않는다.

壘이 끝나는 곳 바로 앞에서 취혈하여야 하는데, 속간에서 壘 바로 위, 뼈 위에 취혈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6) 足三里(ST36)

이 부분은 표현이 『동인수혈침구도경』과는 약간 다르며, 『십사경발휘』와는 차이가 상당하다(뒤의 <표6> 참조). 허임이 轉抄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약간 개변했을 수도 있고, 당시 유통되던 『십사경발휘』의 판본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문의 내용을 고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토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銅曰在膝蓋下三寸^{5,6)} 筋外廉兩筋間陷中이라하고 ○按^⑭揮에 云膝蓋下三寸筋外廉이니 自骨邊으로 橫量一寸하야 該의兩筋間陷中이오 以手按兩筋間이면 則足跗上太衝脈이 不動이라하니 是可驗矣어늘 而俗이 徒取筋外廉陷中하고 不察其在兩筋間陷中이니라^{5,6)}.

⑬ ‘언덕’이라는 뜻인데, 해부학상 Fibula의 하부 외측면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⑭ ‘發’의 오식으로 생각된다.

번역 : 『동인수혈침구도경』에 이르기를, 膝蓋 아래로 3촌, 筋骨 바깥쪽 두 근육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이라 하고 ○ 『십사경발휘』에 이르기를, 膝蓋 아래로 3촌, 筋骨 바깥쪽이니 뼈 가장자리에서 가로로 1촌을 재어 거기서 두 근육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이며, 손으로 두 근육 사이를 누르면 발등의 太衝脈이 움직이지 않는다하니, 이로써 확인해볼 수 있거늘, 속간에서는 단지 筋骨 바깥쪽의 움푹 들어간 곳만 취하고 두 근육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2. 「訛穴」과 주요 침구서 穴位 표현의 대조 및 고찰

1) 少商(LU11)

내용을 약간씩 바꾼 것도 있기는 하지만, 少商(LU11)의 위치에 대한 표현이 대체로 초기의 표현을 답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A. ‘手大指端內側’이라고만 한 『靈樞』를 제외하고, 모든 서적에서 동일한 것은 다음과 같다^⑮.

- a. 엄지손가락 끝의 안쪽에 있다. - 이에 대해서는 ‘在手大指端內側’, ‘大指內側’, ‘在手大指內側端’ 등의 표현이 있으나, 의미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⑮ 『靈樞』 口問篇에 “手大指爪甲上與肉交者也”라는 구절이 있는데, 張介賓은 少商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엄지 손가락 손톱 주변의 살과 만나는 부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手大指端內側也”이라는 표현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영추』에서도 A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b. 손톱에서 부추 잎 폭만큼 떨어져 있다.
- ‘去爪甲如韭葉’, ‘去爪甲角如韭葉’, ‘去爪甲角如韭葉許’ 등의 다양한 표현이 있으나, 부추 잎 폭만큼 떨어져 있는 것은 동일하다.

B. A에는 없지만, 몇몇 서적에서 추가로 더 나온 표현은 다음과 같다.

a. 角 - 손톱 모서리(角)에서 부추 잎 폭만큼 떨어져 있다는 말인데, <표1>에 인용된 17종의 서적 중 11종이 이 언급을 하고 있다. 현재의 취혈도 ‘손톱 모서리(角)’라는 것을 인정해 취혈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하겠다(角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의견이 갈라지지만).

b. 白肉際 - 흰 살의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赤白肉際로 보아도 무난하다. 단, 유독 『십사경발휘』에서는 ‘白肉內’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¹⁹⁾

c. 宛宛中 - 白肉際라는 말이 들어간 서

적에서는 『循經考穴編』만 제외하고는 모두 나온 표현인데, 눌렀을 때 주위보다 움푹 들어가는 곳을 말한다.

d. 爪甲有四角, 此取內側上角也. 韭葉有大小²⁰⁾, 正取非大非小, 闊二分許, 以量中度之人, 若大小以意量 : 손톱에는 네 모서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쪽 윗 모서리이다(윗 모서리라는 것은 상대가 손을 취하는 사람을 향해 내밀고 취할 때 위쪽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부추 잎은 大小가 있는데, 바르게 취하는 것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다. 2푼 정도 폭으로 사람에게 맞게 헤아리는 것이니, 大小에 있어서는 각기 상황에 따라 헤아리는 것이다.

B-a,b,c는 A와 모순된다고 보기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추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설명이며, d의 경우는 B-a를 포함하고, A-b의 뜻을 좀 더 상세히 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

『침구경험방』의 표현은 A를 기본으로 하고, B-a,d를 포함하였다. B-b,c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 b와 c도 거의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b : 손톱 속의 모서리가 엄지손가락의 횡문과 마주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림1>에서 E 선상의 F가 아니라 G 선상의 D 쪽으로 爪甲角의 위치를 잡고 여기에서 부추 잎 만큼 띄워 취혈하면 거의 白肉際에 가까운 곳이 된다.

B-c : 살 속의 손톱 모서리에서 부추 잎 만큼, 그것도 상황에 따라 폭을 조절하여(韭

¹⁹⁾ 검토해 보니 몇몇 판본에서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 논문에서 인용한 『침구명저집성』의 교감 과정에서 바로 잡았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교감 과정의 문제점도 좀 있어 보이지만 이는 차치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침구절요취영』의 교감본에서는 少商의 위치가 “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葉 白肉際 宛宛中”으로 되어 있으며, 『십사경발휘』의 교감본에서는 “大指端內側 在爪甲角如韭葉 白肉內 宛宛中”으로 되어 있다. ‘爪甲角’ 앞의 글자가 ‘去’자와 ‘在’자로 다르고 ‘白肉’ 뒤의 ‘際’자와 ‘內’자가 다르다. 『십사경발휘』안의 商陽 등 다른 井穴에서도 ‘在’는 ‘去’자로 되어 있으며, 이는 日本의 寬政 10년본¹⁶⁾과 대만의 旋風出版社本¹⁷⁾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출판시의 오석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內’자는, 일본 寬政 10년본과 旋風出版社本 모두 동일하게 ‘內’자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文義상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같은 내용을 인용한 『침구절요취영』에서도 ‘際’로 되어 있어, 교감시 ‘際’로 수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다.

²⁰⁾ 이 한 구절은 『침구경험방』과 동일하다.

葉有大小) 위치를 정한다면, 상황에 따라 폭을 조절하는 기준은 상식적으로 ‘宛宛中’의 예는 없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허임이 다른 침구서를 모두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구경험방』의 少商(LU11) 취혈법은 여기에서 검토한 다른 침구서들의 의견이 모두 종합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서적들에 비하여 단연 정밀하다고 할 수 있으며, ‘手足之端이 悉皆倣此’라는 말을 고려한다면, 다른 모든 井穴의 취혈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針灸經驗方』의 방식 외에, 여러 의서의 표현을 종합하는 다른 방법으로 日本 原南陽의 『經穴彙解』에 나온 “손톱에서 부춧잎 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손톱에서 떨어져서 (그 주위의) 살과 만나는 것의 모습이 부춧잎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손톱 가장자리의 살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凡去爪甲如韭叶者 去其爪甲所与肉交形似韭叶者也 故古典言爪甲上与肉交者)”라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

이는 ‘如韭叶’의 의미를 살미의 손톱 뿌리 부분과 살이 겹치는 부분의 모습이 부춧잎 같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인데, 이를 받아들인다면, 爪甲角을 「그림1」의 B로 보고, 여기에 『黃帝內經明堂』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대략 2分 정도를 떨어져 赤白肉際상의 宛宛中을 취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엄지손톱 옆의 적백육제를 따라 가장 움푹한 곳을 찾다 보면 실제의 위치는 거의 「그림1」의 C와 동일하게 되

므로, 이는 사실상 해석의 차이일 뿐이 되며, 이렇게 하게 되면 부춧잎의 폭이 ‘좁’, 어찌 보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①.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서적으로는 『태평성혜방』, 『침구자생경』, 『십사경발휘』, 『침구집서』, 『침구취영』, 『유경도익』, 『순경고혈편』 등이 있지만, 표현의 정밀함에서는 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현대까지 내려오는 오류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經穴彙解』에서는 이상의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취혈에 있어서는 菲葉의 폭을 少澤(SI1)과 동일하게 1分으로 언급하는 오류를 범하여^② 이와는 다른 취혈을 제시하였다.

① 앞에서 언급하였듯, 大敦의 자침 깊이가 同身寸으로 3分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이는 뒤의 WHO 표준안 고찰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표 1. 주요 침구서들의 少商 穴位 표현

靈樞 ⁹⁾	手大指端內側也
鍼灸甲乙經 ²⁾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 ³⁾ 如韭葉
黃帝內經明堂 ¹⁰⁾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葉 (爪甲有四角 此取內側上角也 韭葉有大小 正取非大非小 闊二分許 以量中度之人 若大小以意量) ⁴⁾
備急千金要方 ¹¹⁾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葉
外臺秘要 ¹²⁾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如韭叶
太平聖惠方 ¹³⁾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叶 白肉際 宛宛中是也(99卷) 在手大指內側 去爪甲角如韭叶陷者中(100卷)
銅人腧穴針灸圖經 ²⁾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葉
聖濟總錄 ¹⁴⁾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叶
鍼灸資生經 ²⁾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葉 (『明』云 白肉際 宛宛中) ⁶⁾
十四經發揮 ²⁾	在大指端內側 在 ⁷⁾ 爪甲角如韭葉 白肉內 ⁸⁾ 宛宛中
針灸大全 ²⁾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如韭葉許 ⁹⁾
針灸集書 ²⁾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如韭葉 (『明』云 白肉際 宛宛中) ¹⁰⁾
鍼灸聚英 ²⁾	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葉 白肉際 宛宛中
鍼灸大成 ²⁾	大指內側 去爪甲角如韭葉
針方六集 ²⁾	在手大指內側端 去爪甲如韭葉
類經圖翼 ¹⁵⁾	在手大指內側端去爪甲角如韭葉白肉際宛宛中
循經考穴編 ²⁾	在手大指內側 去爪甲角如韭葉許 白肉之際

2) 合谷(LI4)

- ③ ‘角’자가 없음에 유의.
 ④ 『황제내경명당』은 현재 1권인 手太陰肺經 부분만 남아 있는데, 注의 내용이 허입의 서술과 무척 유사하다.
 ⑤ 『太平聖惠方』 99권과 100권의 침구편을 말한다.
 ⑥ 괄호 안의 내용은 주석으로 되어 있다.
 ⑦ 『침구명저집성』에는 商陽이나 다른 井穴에는 ‘去’자로 되어 있으나, 少商(LU11)에 있어서는 ‘在’자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주석 ⑦을 참조.
 ⑧ ‘際’자가 아닌 ‘內’자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뒤의 주석 ⑦을 참조.
 ⑨ ‘許’ 한 글자가 더 있다.
 ⑩ 『針灸集書』하권의 수혈 부분은 『鍼灸資生經』의 주해에 근거한 것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爪甲角의 ‘角’자가 없다.

표 2. 주요 침구서들의 合谷 穴位 표현

靈樞 ⁹⁾	在大指岐骨之間
鍼灸甲乙經 ²⁾	手大指次指 ¹¹⁾ 間
備急千金要方 ¹¹⁾	在手大指次指岐骨間
外臺秘要 ¹²⁾	在手大指岐骨間
太平聖惠方 ¹³⁾	在手大指兩骨罅間 宛宛中
銅人腧穴針灸圖經 ²⁾	在大指岐骨間(上卷) 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下卷)
聖濟總錄 ¹⁴⁾	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191卷) 穴在手大指虎口兩骨間陷中(192卷)
鍼灸資生經 ²⁾	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 (『明』云 手大指兩骨罅間宛宛中)
十四經發揮 ²⁾	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
針灸大全 ²⁾	在虎口岐骨之間陷中
針灸集書 ²⁾	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 又云 手大指骨罅間宛宛中
鍼灸聚英 ²⁾	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
鍼灸大成 ²⁾	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
針方六集 ²⁾	在手大指次指岐骨間 動脈應手
類經圖翼 ¹⁵⁾	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
循經考穴編 ²⁾	在手虎口岐骨間陷中. 廣注: 宣并二指 取紋盡高肉上 手握拳下針

주요 침구서적들의 내용에 陷中, 宛宛中 정도 외의 큰 차이는 없다.¹²⁾ 유독 『침방육집』과 『순경고혈편』의 廣注에 추가적인 언급이 있는데, 『침방육집』의 표현은 원혈과 동맥과의 관련성, radial artery가 합곡 부위로 지나감을 생각하면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순경고혈편』의 언급은 취혈의 요령으로 그 합리성은 의문스럽다.

『訛穴』에서 언급한 내용은 양명경에 속함만 생각해서 식지 쪽으로 치우쳐서 취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취혈법에 있어서 『동인수혈침구도경』의 언급 외에 더 밝힌 것은 없으며, 다른 서적들에 비해 특별히 상세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⑪ 次指 : 『침구명저집성』에서 他校本으로 사용한 『外臺秘要』, 『醫心方』에는 ‘歧骨’으로 되어 있으며, 明抄本에는 ‘次指岐骨’로 되어 있다.

⑫ 大指, 次指, 大指次指 등의 표현 문제는 앞의 訛穴 번역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3) 神門(HT7)

역대 침구서들의 표현을 살펴보면, 『유경도익』에서만 ‘當小指後’라는 표현을 썼을 뿐, 전반적으로 “掌後銳骨之端陷中”에서 몇 글자의 차이 외에 의미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循經考穴編』의 廣注에 “轉手骨開, 方可得之”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轉手骨開’란, 養老穴의 취혈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손을 돌려 척골과 요골의 뼈 사이 틈이 열린 상태에서 취혈하는 것이다(元代の 『扁鵲神應鍼灸玉龍經』에도 “神門獨治癡呆病 轉手骨開得穴眞”라는 표현이 보인다). 訛穴에서 오류로 지적한 ulnar styloid process 끝에서의 취혈법과 유사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訛穴」의 혈위 표현은 다른 주요 서적들보다 자세하거나 추가된 것은 없다. 단, 앞서 번역에서 언급하였듯 掌後兌骨端을 어디로 보는가의 문제에 있어 『十四經發揮』, 『類經圖翼』, 『醫宗金鑑』 등에서 보이는 오류를 지적하였다 하겠다.

표 3. 주요 침구서들의 神門 穴位 표현

鍼灸甲乙經 ²⁾	在掌後兌骨之端陷者中
備急千金要方 ¹¹⁾	在掌後兌骨端陷者中
外臺秘要 ¹²⁾	在掌後兌骨之端陷者中
銅人腧穴針灸圖經 ²⁾	在掌後兌骨之端
聖濟總錄 ¹⁴⁾	在掌後兌骨之端陷中
鍼灸資生經 ²⁾	在掌後兌骨端陷中
十四經發揮 ²⁾	在掌後銳骨之端陷者中
針灸大全 ²⁾	在手掌後兌骨之端
針灸集書 ²⁾	在掌後兌骨之端陷中
鍼灸聚英 ²⁾	掌後銳骨端陷中
鍼灸大成 ²⁾	掌後銳骨端陷中
針方六集 ²⁾	在手指掌後兌骨端陷者中
類經圖翼 ¹⁵⁾	在掌後銳骨端陷中 當小指後
循經考穴編 ²⁾	在掌後兌骨之端陷者中 (廣注 ¹³⁾ : 轉手骨開 方可得之)

4) 肩井(GB21)

다른 주요 서적들의 취혈도 대개 『동인수혈침구도경』과 차이가 없으나, 유독 『침방육집』과 『순경고혈편』의 廣注에 독특한 부분이 있다.

小阪元祐의 『經穴纂要』에서는 『醫學原始』를 인용하여 “以手小指頭節 按於巨骨上 取中指第二節橫紋 是穴”¹⁸⁾이라 하였는데, 새끼손가락을 거골혈에 대고 손가락을 나란히 붙여 중지 2절 횡문에 닿는 위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침방육집』, 『순경고혈편』의 취혈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되나, 새끼손가락을 붙이는 부위가 이와 다르다. 肩柱骨은 肩端起骨尖에 있는 경외기혈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서적의 방법이 모두 어깨 끝 부위에 새끼손가락을 대고, 중지가 닿는 위치에서 취혈하는 방식으로 「訛穴」에

⑬ 『循經考穴編』은 기존의 여러 서적에서 초록해 주를 달았는데, 그 중에는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책도 많다. 이 부분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책에서 인용하여 주를 단 것으로 본다.

서 속간의 오류로 언급한 방식이다.

訛穴의 이 부분은 『동인수혈침구도경』과 완전히 일치하며, 속간의 오류를 지적한 외에 취혈법에 있어서 더 설명한 내용은 없다.

표 4. 주요 침구서들의 肩井 穴位 표현

鍼灸甲乙經 ²⁾	在肩上陷者中 缺盆上 大骨前
備急千金要方 ¹¹⁾	在肩上陷解中缺盆上大骨前
外臺秘要 ¹²⁾	通按聖濟 ¹⁴⁾ 肩井在肩上陷 缺盆上大骨前一寸半 以三指按之 當中指下陷中是
太平聖惠方 ¹³⁾	在肩上陷中 缺盆上 大骨前一寸半 以三指按之 當其中指下陷者中是也
銅人腧穴針灸圖經 ²⁾	在肩上陷解中 缺盆上 大骨前(上卷) 在肩上陷 缺盆上大骨前一寸半 以三指按取之 當中指下陷者是(中卷)
聖濟總錄 ¹⁴⁾	在肩上陷解中缺盆上大骨前 在肩上陷解中 缺盆上大骨前一寸半 以三指按取之 當中指下陷者是
鍼灸資生經 ²⁾	在肩上陷(『明堂』此有『中』二字) 缺盆上 大骨前一寸半 以三指按取之 當中指下陷中
十四經發揮 ²⁾	在肩上陷中 缺盆上 大骨前 一寸半 以三指按取之 當中指下陷中者是
針灸大全 ²⁾	缺盆之上肩井當 ¹⁵⁾
針灸集書 ²⁾	在肩上陷 缺盆上 大骨前 一寸半 以三指按取之 當中指下陷中是
鍼灸聚英 ²⁾	肩上陷中 缺盆上 大骨前 一寸半 以三指按取 當中指下陷中
鍼灸大成 ²⁾	肩上陷中 缺盆上 大骨前 一寸半 以三指按取 當中指下陷中
針方六集 ²⁾	肩上陷是缺盆 其上一寸半是柱骨 如取左穴 用本人右手小指 按於左肩柱骨尖上 平排三指 取中指下第一節中是穴 取右穴亦如是
類經圖翼 ¹⁵⁾	在肩上陷解中 缺盆上大骨前一寸半 以三指按取之 當中指下陷者中
循經考穴編 ²⁾	在肩上陷者中 缺盆上 大骨前 廣注：一法 以我小指按定肩突骨尖上 取中指第二節下是

5) 絕骨(GB39:懸鐘)

‘足外踝上三寸’이라는 면에서는 모두 일치 하지만, ‘動脈中’, ‘按之陽明脈絕’은 빠진 서

⑭ 『外臺秘要』는 원래 唐代의 서적이지만, 후대의 重刊, 校正 과정을 거치면서 후대의 서적들이 주석으로 인용되었다. 이 부분은 『聖濟總錄』의 인용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聖濟總錄』과는 글자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⑮ 肩井(GB21)의 위치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한 것은 없고, 歌訣속에서만 짧게 언급하였다.

적들도 있다. 『침구대성』에서 말한 ‘尋摸尖骨者(뼈의 뾰족한 부분을 찾음)’에 대하여 몇몇 서적들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나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訛穴의 이 부분은 주요 침구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銅人腧穴針灸圖經』卷上的 내용과 동일하다. “必以絕壘處爲穴而俗以徒取絕壘骨上하고 不察脈行於絕壘向前骨肉之隙이니라”라고 한 것에는 다른 서적에서 언급한 “絕骨尖間筋骨縫中是懸鍾”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足少陽膽經이 뼈 앞으로 흐름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타 서적에서 언급한 “動脈中”, “按之陽明脈絕 乃取之”라고 한 뜻도 얼마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독특한 표현이 더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5. 주요 침구서들의 絕骨 穴位 표현

鍼灸甲乙經 ²⁾	在足外踝上三寸動脈中 足三陽絡 按之陽明脈 乃取之
備急千金要方 ¹¹⁾	在外踝上三寸動者中
太平聖惠方 ¹³⁾	在外踝上三寸宛宛中/在外踝上三寸動脈中
銅人腧穴針灸圖經 ²⁾	在外踝上三寸(卷上) 在足外踝上三寸動脈中 按之陽明脈 乃取之(卷下)
聖濟總錄 ¹⁴⁾	在足外踝上三寸動脈中 足三陽之大絡 按之陽明脈 乃取之
鍼灸資生經 ²⁾	在足外踝上三寸動脈中 (外踝上三寸 又云四寸)
十四經發揮 ²⁾	在足外踝上三寸動脈中
針灸大全 ²⁾	踝上三寸
針灸集書 ²⁾	在外踝上三寸動脈中
鍼灸聚英 ²⁾	足外踝上三寸動脈中 『針灸經』：尋摸尖骨者 乃是絕骨兩分開 足三陽之大絡 按之陽明脈 乃取之 前尋摸絕骨間尖 如前離三分 高一寸許是陽輔穴 後尋摸絕骨間尖筋骨縫中是懸鍾穴
鍼灸大成 ²⁾	足外踝上三寸動脈中 尋摸尖骨者是 足三陽之大絡 按之陽明脈 乃取之
針方六集 ²⁾	在足外踝上三寸 動脈是穴 足三陽絡 按之陽明脈 絕
類經圖翼 ¹⁵⁾	在足外踝上三寸 當骨尖前動脈中 尋按取之 針灸經曰：尋摸尖骨者 乃是絕骨兩分開 爲足三陽之大絡 按之陽明脈 乃取之
循經考穴編 ²⁾	在足外踝上三寸脈中 (廣注：須細揣摸絕骨尖 如前三分 而高寸許是陽輔 絕骨尖間筋骨縫中是懸鍾 與三陰交對 足三陽之大絡也 按之而陽明脈 絕則取之)

6) 足三里(ST36)

표 6. 주요 침구서들의 足三里 穴位 표현

靈樞 ⁹⁾	膝下三寸 胫骨外三里也
鍼灸甲乙經 ²⁾	在膝下三寸 胫外廉 (『素問』: 在膝下三寸胫外廉兩筋間分間)
備急千金要方 ¹¹⁾	在膝下三寸 胫骨外
外臺秘要 ¹²⁾	在膝下三寸 胫外廉
太平聖惠方 ¹³⁾	在膝下三寸 脚外廉陷者宛宛中(55卷) 在膝下三寸 胫外廉陷者宛宛中(99卷) 在膝下三寸 胫骨外 大筋內 筋骨之間陷者宛宛中(100卷)
銅人驗穴針灸圖經 ²⁾	在膝下三寸 胫骨外 大筋內 宛宛中(上卷) 在膝下三寸胫外廉兩筋間
聖濟總錄 ¹⁴⁾	在膝下三寸 胫外廉兩筋間 當舉足取之
鍼灸資生經 ²⁾	在膝下三寸外廉兩筋間(一云胫骨外大筋內). ……『素注』: 刺一寸 在膝下三寸胫骨外廉兩筋內分間(『指』 ¹⁶⁾ 云: 深則 ¹⁷⁾ 足跗陽脈不見; 『集』云: 按之太衝脈不動)
十四經發揮 ²⁾	在膝眼下三寸 胫骨外 大筋內 宛宛中 …… 極重按之 則跗上動脈止矣
針灸大全 ²⁾	在膝下三寸 大筋內 宛宛中
針灸集書 ²⁾	在膝下三寸 胫外廉 兩筋間 一云 胫骨外 大筋內. …… 極重按之 則足跗上動脈止矣. 此穴在犢鼻下三寸方是三裏 不可便從膝頭骨下去三寸為三裏穴 恐失之太高矣
鍼灸聚英 ²⁾	膝下三寸 胫骨外廉 大筋內 宛宛中 兩筋肉分間 …… 極重按之 則跗上動脈止矣.
鍼灸大成 ²⁾	膝下三寸 胫骨外廉 大筋內 宛宛中 兩筋肉分間 …… 極重按之 則跗上動脈止矣.
針方六集 ²⁾	在膝下三寸 大胫骨外廉兩筋間 …… 以虎口當膝端 中指盡處是穴
類經圖翼 ¹⁵⁾	在膝眼下三寸 骨外廉 大筋內宛宛中 坐而豎膝低跗取之 極重按之 則跗上動脈止矣
循經考穴編 ²⁾	在膝眼下三寸 胫骨外 大筋內 宛宛中. 廣注: 犢鼻下三寸 須於胫骨外容側指許兩筋間極重按 則跗上動脈止矣

訛穴에서는 속간의 오류를 지적한 것 외에, 취혈법에 있어서 주요 서적들보다 더 상세한 표현은 없다¹⁸⁾.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¹⁶⁾ 여기에서는 ‘往’의 뜻.

¹⁷⁾ 『全生指迷方』

¹⁸⁾ 『全生指迷方』 원문에는 “以指深按之則”으로 되어 있다.

¹⁹⁾ 유독 『太平聖惠方』만은 “胫骨外, 大筋內, 筋骨之間陷者宛宛中”이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에서 ‘筋骨之間陷者宛宛中’이라는 표현은 뼈와 근육의 사이를 취하라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서적에도

“自骨邊으로 橫量一寸”이라는 부분이지만, 정확히 그 부분을 자침하는 것이 아니라 “該的兩筋間陷中”을 찾아서 꼭 눌렀을 때 발등 위의 태충맥이 멈추는 곳을 찾으라 했으니 ‘一寸’은 조금은 유동적인 거리라고 할 수도 있겠다.

3. 「訛穴」을 토대로 한 WHO 경혈 표준안 고찰

1) 少商(LU11)

On the thumb, radial to the distal phalanx, 0.1 F-cun proximal-lateral to the radial corner of the thumb nail, at the intersection of the vertical line of the radial border and the horizontal line of the base of the thumb nail³⁾.

- 전반적으로 「訛穴」에서 속간의 오류로 지적되었던 <그림1>의 A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訛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1. ‘爪甲角에서 同身寸으로 0.1촌(0.1 F-cun proximal-lateral to the radial corner of the thumb nail)’이라는 말은 日本의 原南陽이 지은 『經穴彙解』에서 『鍼灸甲乙經』 少澤(S11) 취혈에 “在手小指端 去爪甲 一分”이라 하였으니 葦葉의 크기는 ‘1分’이라고 규정한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한 사람의 同身寸은 모든 손가락에 동일한 길이로 적

이곳을 足三里로 표현한 곳은 없다.

용되지만, 같은 사람일지라도 손가락, 발가락들은 각기 그 크기가 다르며, 손톱의 크기도 다르다. 爪甲角에서 ‘白肉際 宛宛中’의 위치까지는 각 손가락마다 거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1分’이라는 蕤葉의 폭이 少澤(SI1)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大敦(LR1)과 같은 곳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길이가 少商(LU11)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경혈회해』의 오류라 하겠으며, 사람마다의 차이를 반영한 『黃帝內經明堂』과 『鍼灸經驗方』의 ‘蕤葉有大小’가 좀 더 합리적이라 하겠다.

2. 『鍼灸經驗方』에서 속간의 오류로 지적한 그대로, 爪甲角을 ‘살 밖으로 드러난 손톱의 모서리’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3. “at the intersection of the vertical line of the radial border and the horizontal line of the base of the thumb nail”이라는 표현은 역대의 주요 침구서에 없는 표현이며, 오류로 생각된다.
4. 『鍼灸經驗方』에서 속간의 오류로 지적한 취혈과 거의 동일할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천금방』의 일반적 취혈의 고려사항이나 여러 서적에서 언급한 ‘白肉際’, ‘宛宛中’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5. 이러한 오류는 다른 井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습곡(LI4)

On the dorsum of the hand, radial to the midpoint of the second metacarpal bone³⁾

- 이는 그림과 내용으로 볼 때, 「訛穴」에서 언급한 속간의 오류와 거의 동일한 위치라 할 수 있다. 살펴보았던 침구서들 중 어디에도 ‘radial to the midpoint of the second metacarpal bone’의 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으며, 이 부분에 있어 재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만약 ‘大指次指歧骨’의 의미를 식지 중수골로 생각한 것이었다면, 역대 침구서들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이는 앞서 습곡(LI4) 부분의 번역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3) 神門(HT7)

On the anteromedial aspect of the wrist, radial to the flexor carpi ulnaris tendon, on the palmar wrist crease.

Note : In the depression radial to the proximal border of the pisiform bone, on the palmar wrist crease³⁾.

- 『침구경험방』에 어긋나지 않는다.

4) 肩井(GB21)

In the posterior region of the neck, at the midpoint of the line connecting the spinous process of the seventh cervical vertebra(C7) with the lateral end of the acromion³⁾.

- 이는 현대에 와서 흔히 사용되는 취혈법 중 하나인데, 검토해본 여러 주요 침구 문헌들에는 없는 취혈법이다. 기본적 위치와 손으로 더듬어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 탐혈

방식에 있어 문제가 보여, 그 합리성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5) 絶骨(GB39:懸鐘)

On the fibular aspect of the leg, anterior to the fibula, 3 B-cun proximal to the prominence of the lateral malleolus³⁾.

- ‘在外踝上三寸’이라는 표현의 英譯으로 보인다. 『침구경험방』에서 뚜렷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絶隴處’, ‘動脈中’, ‘按之陽明脈絶 乃取之’이라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神應經』에서는 “비록 外踝 위로 外踝를 제하고 3촌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絶隴處로 취혈한다(雖曰外踝上除踝三寸 必以絶隴處爲穴)”¹⁹⁾고 하였는데, 거리보다는 실제 구조물을 더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外踝를 제하고 3촌’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그림에서 外踝와 絶骨(GB39)까지의 거리 기준점을 外踝尖으로 잡고 있는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6) 足三里(ST36)

On the anterior aspect of the leg, on the line connecting ST35 with ST41, 3 B-cun inferior to ST35.

Note : ST36 is located on the tibialis anterior muscle³⁾.

- 이는 『침구경험방』에서 속간의 잘못된 취혈로 언급한 위치에 가까우며, 기타 서적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도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족삼리를 잘 취혈하여 강하게 누르면 발

등 위의 태충맥이 정지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인데, 무릎 아래의 Anterior tibial artery를 강하게 누르면 발등으로 연결된 Dorsal metatarsal artery의 맥동이 정지하게 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Anterior tibial artery는 tibialis anterior muscle과 Extensor digitorum longus muscle의 사이로 지나간다.²⁰⁾ 또한, 여러 침구서에서 ‘兩筋間’이라는 표현이 누차 나왔음은 앞의 <표6>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ST36 is located on the tibialis anterior muscle’이라는 말은 「訛穴」에서 지적된 오류일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서적의 표현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침구경험방』의 「訛穴」은 少商(LU11), 合谷(LI4), 神門(HT7), 肩井(GB21), 絶骨(GB39), 足三里(ST36)에 대하여 기존 서적의 기록과 당시의 속간에서 행해지던 취혈을 검토, 종합하여 합리적인 것을 기재하고,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침구서에 없는 혈위 표현이 나타났는데, 少商(LU11)에 대한 표현이 그것이다. 少商(LU11)은 <그림 1>의 C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주요 침구 서적들의 표현이 종합된 정밀하고 합리적 위치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체 井穴의 위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언급하여 다른

²⁰⁾ 이에 대해서는 樓新法, 楊新東, 蔣松鶴, 孫臣友, 張瑞峰. 「足三里穴進針角度和深度的研究」. 『中國針灸』²⁰⁾에서 해부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이 논문은 다른 여러 면에서도 ‘兩筋間’을 취혈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언급하였다.

모든 井穴의 위치 결정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少商(LU11)을 제외한 혈위에 있어서는 여타 주요 침구서들의 위치 표현 이상으로 특별히 더 언급한 것은 없었다. 속간의 오류로 지적한 부분은 단순히 실수하기 쉬운 오류만이 아니라, 神門(HT7), 肩井(GB21)에서 보듯 현재 전해지는 침구 문헌에 있는 오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WHO 표준안을 검토해 본 결과, 少商(LU11), 合谷(LI4), 足三里(ST36)의 기준안은 『鍼灸經驗方』에서 속간의 오류로 지적하였던 취혈과 유사하며, 여타 주요 침구서들의 내용에도 어긋나 수정이 필요하다. 肩井(GB21)은 검토해 본 주요 침구서들에는 없는 취혈법으로, 재론의 필요성이 있다. 그 외의 神門(HT7)은 『침구경험방』의 의견에 어긋나지 않으며, 絶骨(GB39)은 일부 부족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訛穴」에서 지적한 오류들은 과거의 침구 서적들로부터 현대의 WHO 경혈 표준안에 이르기까지 발견되는 오류들로, 앞으로의 WHO 경혈 표준안 개정에도 참고적 가치가 크며, 「訛穴」은 현대에서도 충분한 적용 가치를 갖는다 하겠다.

參考文獻

1.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73-81, 48.
2. 황용상(主編). 針灸名著集成. 1판. 北京 : 華夏出版社, 1997 ; 1213-4, 5-7, 1196-229.
3. WHO.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1st. ed. WHO. 2008 ; 31, 35, 85, 182, 39, 64.
4. 이재동, 김남일 공저. 중국침뜸의학의 역사. 1판. 서울 : 집문당. 1997.
5. 許任. 針灸經驗方. 韓國醫學大系(38권). 1판. 서울 : 여강출판사. 1994 ; 469-70.
6. 許任. 針灸經驗方. 1판. 서울 : 일증사. 1992. ; 6-7.
7. 許俊. 東醫寶鑑. 新增板. 서울 : 남산당. 1987 ; 754-5.
8. 原南陽 著. 經穴彙解. 針灸醫學典籍大系(19, 20권). 2판. 東京 : 출판과학총합연구소. 1980 ; 285-7.
9. 李慶雨 翻譯. 譯解編注 黃帝內經靈樞. 1판. 서울 : 여강출판사. 2000.
10. 楊上善 撰注.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 新校正. 1판. 북경 : 學苑. 2006.
11. 孫思邈. 千金方. 1판.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12. 王燾. 外臺秘要. 1판.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13. 宋太宗 命撰. 太平聖惠方. 1판. 서울. 翰成社. 1980.
14. 趙佶 編. 聖濟總錄. 1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
15. 張介賓. 類經圖翼. 1판. 서울 : 一中社. 1992.
16. 滑壽. 十四經發揮. 針灸醫學典籍大系(10권). 2판. 東京 : 출판과학총합연구소. 1980 ; 29.

17. 滑壽. 十四經發揮. 1판. 台北 : 旋風出版社. 1973 ; 13.
18. 小阪元祐 著. 經穴纂要. 針灸醫學典籍大系(21권). 2판. 東京 : 출판과학종합연구소. 1980 ; 193.
19. 劉瑾 著. 神應經. 針灸醫學典籍大系(12권). 2판. 東京 : 출판과학종합연구소. 1980 ; 61,
20. 樓新法, 楊新東, 蔣松鶴, 孫臣友, 張瑞峰. 足三里穴進針角度和深度的研究. 中國針灸 2006年 7月 第26卷 第7期.